

사회복지시설 탐방 ⑨ 남사랑선교재활원 & 효사랑의 집 원장 남명구 목사

장애인과 노인생활共同體로 운영



장애인과 노인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살피고 있는 남사랑재활원과 효사랑의 집(원인은 원장 남명구 목사)

남사랑 재활원과 효사랑의 집(원장 남명구 목사·원안사진)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소외된 장애우와 노인들을 보살핌으로 행복추구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0년 설립했다. 남사랑선교재활원과 효사랑의 집(이하 남사랑&효사랑)은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934-5번지에 위치한 장애인과 노인 생활공동체로 2001년 현재의 주소로 이전했다.

살을 운영, 27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실을 운영한다. 이 교실에서는 성경 그림동화, 찬양과 율동, 각종 놀이지도, 점심식사 등을 제공하며 인식과 교제와 인성개발을 운영하고 있다. 효사랑 집은 1999년 10월 3일 설립된 노인 생활 공동체로 노인들은 3인 또는 4인 1실의 온돌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월1회의 이·미용 ▶주 2회의 목욕 및 텃밭가꾸기 ▶종교활동, 건강세미나 및 건강레크리에이션, 온천나들이, 생일잔치, 풍물공연, 오케스트라 공연, 재풍찬흔 등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노인문제 및 건강 상담 ▶연1회이상의 건강 검진, 연2회의 한방진료 및 상담 ▶물리치료 및 건강체조 등의 활동으로 생활하고 있다. 남사랑&효사랑은 현재 장애인 35명과 노인 2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총 12명의 직원이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남 목사는 "직원들중 5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이고, 현재도 3명의 직원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다"며 "10명의 직원 모두 유급직원으로, 보수는 많지 않으나 보람을 갖고 종사할 수 있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목사는 "남사랑&효사랑의 특징은 ▶시설 대다수의 준비가 갖춰져 있어 입소환

노인 및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 ▶16년간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져 있으며 ▶사회복지의 사명감을 갖고 운영하고 있으며 항상 개방돼 있다"고 강조했다. 1998년까지는 시설운영이 원활치 못했다. "처음 시설을 운영할 때는 정부나 포천시의 지원을 거의 못 받은 상태였다"며 "현재 시설의 운영은 전체 입소자 55명중 43명이 수급자로 지정돼 있어 넉넉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청 사회복지과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남사랑&효사랑은 수급자의 지원금을 본인에게 집행해 준다"며 "시설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목사는 시설운영에 있어 경쟁력과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진정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야만 입소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울타리가 없이 운영상의 투명성 보장으로 사회에서 소외 받지 않는 시설로 지역민과 함께 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남 목사는 남사랑&효사랑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해 포천에는 없는 장애인학교를 설립하고 싶으며 포부를 밝혔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 심터

백아절현



석혜승 보문장사주지

춘추 시대, 거문고의 명수로 이름 높은 백아(伯牙)에게는 그 소리를 누구보다 잘 감상해 주는 친구 종자기(鍾子期)가 있었다. 백아가 거문고를 타며 높은 산과 큰 강의 분위기를 그려내려고 시도하면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종자기의 입에서는 탄성이 연발했다. "아, 멋지다. 하늘 높이 우뚝 솟는 그 느낌이 마치 태산(泰山)같군." "응, 훌륭해. 넘칠 듯이 흘러가는 그 느낌은 마치 황하(黃河)같군." 두 사람은 그토록 마음이 통하는 연주자였고 청취자였으나 불행히도 종자기는 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러자 백아는 절망한 나머지 거문고의 줄을 끊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겠다고 한다. 지기(知己)를 가리켜 지음(知音)이라고 일컫는 것도 이 고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백아와 종자기 같은 우정이 이

세상에 흔치 않은 것을 보면 남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듯 하다. 당시에 백아의 연주 실력을 칭찬한 사람은 종자기 말고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독 종자기의 칭찬을 기뻐했던 것은 왜 일까? 그것은 아마도 종자기가 백아의 의중을 정확히 짚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종자기 역시 백아와 마찬가지로 운마음을 선율에 실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 애정을 가져야 하며 온 마음을 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포천신문 지문위원회 제16차 임원회의

5월26일 지문위원회 춘계수련대회 개최기로



본지 지문위원회(위원장 양주승) 제16차 임원회의가 8일 송우리 모음식점에서 개최됐다.

본지 지문위원회(위원장 양주승) 제16차 임원회의가 8일 송우리 모음식점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포천신문지문위원회 제15차임원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포천신문지문위원회 2005년 1월~3월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포천신문지문위원회 회칙 제2장 제4조 3항에 의거,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한 의정부 한방병원 김원찬 원장, 이성노 포천동 체육회장, 양문 감리교회 문영환 목사 등 3명의 지문위원 해촉의 건 및 내촌 감리교회 김창성 담임목사를 지문위원으로 위촉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지문위원회 춘계수련대회를 5월26일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으로 방조계 견학 및 해수사우나 안으로 결정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4@paran.com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한다”

독거노인 450여명 목욕봉사

포천시의회 임시회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



제14회 포천시의회(의장 최대중)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견”을 이강림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포천시의회(의장 최대중)는 지난 달 30일 10시 임시회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독도 수호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일본은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만

약, 식민지 지배를 반성은 커녕 역사왜곡으로 또다시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고 갖에 대해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실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 수 있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은 물론 국민의 이주와 이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병력 확충 등 제반 정책을 조기에 가시 하 하여 다시는 독도 문제가 일본에 의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시민의 의견을 담아 국회와 청와대 및 관계부처에 송부하는 물론 외교교통부를 경유하여 일본정부와 시미네현 의회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세마을운동포천시지회, 상시업비 목욕봉사로 지역에 환원



세마을운동포천시지회 강태선 회장이 지난 8일 일동면 일동사이면에서 독거노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회장 강태선)는 지난 8일 일동면 일동사이면에서 관내 독거노인 450여명에게 무료목욕봉사를 실시했다. 포천시 14개 읍·면·동 협의회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및 부녀회 회원 80여명이 함께 참여한 이번 목욕봉사는 지회가 2004년 새마을운동평가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상시업비로 받은 삼금 300만원 등 총 400여만원의 비용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회 관계자는 “지회가 지난해 봉사활동을 통해 인정받아 수상한 삼금인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독거노인 목욕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2시까지 진행된 독거노인 목욕봉사는 각 읍·면·동별 목욕이 끝난 후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가신배드민턴 클럽 창립 5주년 기념식

가산초등학교 강당서 1백여 회원 참석



가신배드민턴 클럽(회장 정상근)은 지난달 20일 창립5주년 기념식을 갖고 배드민턴 경기 활성화로 건강한 삶 유지는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다짐했다.

가신배드민턴 클럽(회장 정상근)은 지난달 20일 창립5주년 기념식을 갖고 배드민턴 경기 활성화로 건강한 삶 유지는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은 포천시 이유성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김영오 포천시의회의원, 양호식 포천배드민턴연합회 회장과 지역유지자와 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기원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가신배드민턴클럽 발전공공위원회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식도 가졌다. 감사패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강당을 제공해준 가산초등학교 김창성 교장에게 전달했으며 공로패는 3대회위원장 라순규 회장에겐 지난달 20일 창립5주년 기념식 및 가신배드민턴 경기 활성화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 전직임원에 대한 감사장은 부회장 박수자, 총무 노훈식, 운영이사 이명림, 김도겸, 감사 유희재 회원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가신배드민턴클럽은 포천시 관내 탁구클럽에 비해 가장 모범이 되는 클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시범경기과 기념식후에는 친선경기도 이어져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일동면 지역 우수성 알리는 기사발굴”

7일 주부명예기자단 일동지부 전체회의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일동면지부(지부장 남만우)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일동면 지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사를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짐했다. 최두열 본지 전무이사를 비롯해 일동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명예기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부장 인사말과 축하, 신입 기자 위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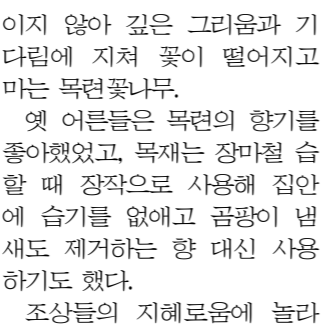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신임 김옥남 주부명예기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김옥남 주부명예기자에게 위촉장 전달식을 갖기도 했으며 주부명예기자단 일동면지부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식물기르기 ⑩-목련꽃나무

이제 목련이 봉우리를 머무르고 있는 상큼한 4월 서늘한 바람도 기분 좋은 계절이다. 환하게 번그리던 목련 종류만 해도 400여 가지가 넘는다. 그 중에서 백목련과 목련에 차이를 알아야 목련을 안다고 할 수 있다. 봄이 완연 할 즈음 목련 꽃망울이 터트려 질 때 목련과 백목련의 차이를 구분 할 수 있다. 목련은 재주도가 교향이자 우리나라 나무다(일본에도 분포함). 백목련은 중국이 원산지다. 두 종류의 목련, 원산지가 우리나라 것을 목련이라 하는데 꽃잎이 좀더 가늘며 백목련 보다 앞서 꽃을 피우고 꽃잎 안쪽으로 붉은 선이 있어 구분 방법이 쉽다. 재미있는 것은 백목련과 목련 모두 꽃 봉우리가 일제히 한곳을 향하여 피고 복쪽을 향하여 굽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목련을 옛날에는 복향화라고 부르기도 했다. 목련은 매력적인 나무다. 꽃을 피우기 전 봉우리는 빛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봄이면 초목의 이파리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추운 겨울을 나고 이른봄 서늘러 피어나곤 하지만 잎이 보



정선교 주부명예기자단 가신지부장 대전대학교 평생교육원 플라워디자인 강사

이지 않아 깊은 그늘과 기다림이 지쳐 꽃이 떨어지고 마는 목련꽃나무. 옛 어른들은 목련의 향기를 좋아했고, 목재는 장마철 습할 때 장작으로 사용해 집안이 습기를 없애고 곰팡이 냄새도 제거하는 향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 조상들의 지혜로움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목련은 약재로도 길요하게 쓰여졌다. 꽃 봉우리는 축농증 등 콧병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남부 미국인들은 목련을 주화로 정했을 만큼 좋아했고, 내 사랑 목련화야~ 노래나 시 등 목련꽃나무는 함박웃음으로 단아한 자태를 뽐낼 만 하다. 4월이면 정원손질, 나무심기, 분갈이 등 식물에 관심이 높아지는 때이다. 이쯤 백목련이 아닌 우리나라 목련꽃나무를 한 그루 심어보자. 한 가구포 한 그루씩의 목련꽃나무를 심는다면 목련의 도시 포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user0316@nate.com

공연 안내

포천반월아트홀

- ▶테너 임정현교수와 함께하는 포천시립합창단 봄맞이 음악회 -2005년4월14일(목) 오후7시30분 대극장, 전석무료
- ▶2005 포천시 청소년 전통문화 페스티벌(포천시립민속예술단) -2005년4월16일(토) 오후3시 대극장, 전석 무료
-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서울예술단) -2005년4월30일 오후3시, 오후7시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 2005년5월 1일 오후3시,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박진수원장 경기도 장애극복상 수상

해뜨는 집 운영... 뇌병변 1급



해뜨는 집 박진수원장

포천시 신북면 해뜨는 집 원장인 박진수(41) 씨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 장애인에게 수여하는 장애인 극복상을 수상하게 된다. 강원도 철원에서 2남 5녀의 막내로 태어난 박진수 원장은 한 살 때 장티푸스를 앓아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되었으며 학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15세까지 누워서 TV를 보며 한글을 익혔다. 15세 때 처음, 세발자전거를 타며 재할의지를 다져, 불태워 바깥 나들이를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리고 심지어 불발매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와 같은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결심 때문이었다고 한다. 1981년 장애의 몸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삶의 가치와 비전

을 제시하기 위해 '사람의 글' 상담소를 개소해 청소년 고민상담을 편지로 시작하게 되었고, 1988년부터는 사람의 빛 회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오고 있다.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찬양제를 11회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음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1994년 KBS 사랑의 가족에 출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었으며, 1998년부터 매년 장애인 주간마다 조승미발레단의 도움을 받아 금년까지 7회째 정기공연을 기획주관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제5회 경기도 장애극복상에 총 29명의 후보 중 박진수씨와 용인시 박진영(34)씨, 성남시 정일상(65)씨 등 3명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2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치러지며 상금 5백만원과 해외여행 등 특전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